

## 상해·폭행

[인천지방법원 2008. 3. 21. 2007노1743]



### 【전문】

#### 【피 고 인】

【항 소 인】 검사

【검 사】 진정길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김충래

【원심판결】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. 7. 12. 선고 2007고단232 판결

#### 【주문】

】

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.

#### 【이유】

##### 】1. 항소이유의 요지

가. 안수기도와 관련한 폭행 부분

이 사건 안수기도가 피해자에게 심한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, 또한 안수기도에 관하여 피해자의 모 공소외 1(대법원 판결의 공소외인)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으므로, 피고인의 이 사건 안수기도는 폭행에 해당하고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.

나. 각 폭행 부분

원심은 피해자의 검찰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, 공소외 1, 2, 3의 원심 증언에 비추어 보면, 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므로, 피고인의 각 폭행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.

##### 2. 판단

원심은 ○ 안수기도 관련한 폭행 부분에 관하여는, 피고인이 안수기도를 하게 된 경위, 안수기도에 대한 사전설명, 안수기도의 방법, 대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, 피고인의 이 사건 안수기도 행위는 그 동기나 수단,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되어 형법 제20조의 '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'에 해당하고, ○ 그 외의 폭행 부분에 관하여는, 피고인이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환자인 사정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, 공소외 1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, 공소외 3의 진술은 시어머니로부터 폭행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증거로 삼을 수 없거나 유죄인정의 증거로 부족한 점, 공소외 2의 진술은 폭행 도구, 일시에 관한 진술이 반복되고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, 상해진단서와 상해부위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에게 각목으로 얻어맞아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,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,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.

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,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,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.

### 3. 결론

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경민(재판장) 황영희 김태환